국어 독서 · 개념 이해·적용 학습지

독서07 설명과 주장의 평가

대치동 재우쌤 연결 개념 **독서07-01~07-06**

묶음	핵심 질문	평가의 초점	질문 번호
1. 비판적 읽기의 기본	좋다·싫다를 넘어 무엇을 판단하나요?	느낌 / 기준과 근거	01~03
2. 내적 준거(기준)	글 안의 내용·표현·짜임이 잘 맞나요?	정확성 · 적절성 · 유기성	04~06
3. 외적 준거(기준)	글과 필자·독자·현실의 관계는 어떤가요?	신뢰성 · 글 밖 자료와 대조	07~09
4.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계산이 맞으면 자료 사용도 맞나요?	자료의 정확성 · 신뢰성	10~13
5. 논증의 타당성과 공정성	근거가 결론을 충분히 뒷받침하나요?	타당성 · 공정성	14~17
6. 효용성과 평가 문장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글인가요?	효용성 · 근거 있는 평가	18~20

단원에서 이어 볼 것: 글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기준과 근거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평가합니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평가 기준 지도

평가 기준 지도 · 어디를 살피는가?

글 안을 본다
내적 준거(기준)

평가 대상: 글

정확성
정보·용어·수치가
분명하고 정확한가?
질문 04 · 10~11 · 13

적절성
내용·설명 방법이
주장·목적에 맞는가?
질문 05

유기성
부분들이 중심 내용에
맞게 연결되는가?
질문 06

위는 주로 쓰이는 기준의 묶음
질문 08에서 예외도 확인

글 밖과 견준다
외적 준거(기준)

신뢰성
출처·필자·조사 방법을
믿을 근거가 있는가?
질문 09 · 12

타당성
주장과 내용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가?
질문 14~15

공정성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었는가?
질문 16~17

효용성
독자의 목적과 상황에
도움이 되는가?
질문 18~19

정확성을 글 밖 자료로 확인하면 외적 점검 → 질문 07 · 19 /
구별하는 법 → 질문 08

이름보다 '무엇과 무엇을 견주는가'를 먼저 본다.
문제에서 준거를 제시하면 그 기준을 우선한다.

1 비판적 읽기의 기본

좋다·싫다를 넘어 무엇을 판단하나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 **비판적 읽기**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표현·자료·논증 등을 평가하는 읽기	글: “두 안의 비용을 같은 기간으로 계산했다.” 이 용어로 보면: 견주는 기준을 맞춘 점을 인정함
평가 기준	무엇을 중요하게 보아 판단할지 정한 잣대	글: “초보자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모두 나오는가?” 이 용어로 보면: 초보자의 준비에 필요한 정보가 기준
평가 근거	평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	글: “필요한 종이의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이 용어로 보면: 준비 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의 근거

★ = 이 단원의 핵심 용어. 나머지는 이해를 돕는 풀이말입니다.

연결 개념 **독서07-01.**

질문 01 비판적으로 읽으려면 반드시 반대해야 하나요?

비판적 읽기는 기준과 근거로 평가하는 일입니다. 충분히 뒷받침된 점은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그 범위를 정해 지적합니다.

예문

두 청소 도구를 견준 글은 같은 넓이의 바닥에서 같은 시간 동안 시험한 결과를 실었다. 한 도구의 장점과 한계도 함께 밝혔다.

구조 보기

읽은 뒤 한 말	평가의 근거
“난 이 도구가 싫어서 이 글도 싫어.”	도구에 대한 취향만 말함
“넓이와 시간을 맞춰 시험했으므로 두 도구를 견줄 조건을 갖춘 점이 좋다.”	글에 제시된 시험 조건을 근거로 장점을 평가함

오해 바로잡기

✗ 글의 장점을 인정했으므로 비판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다.

○ **‘같은 넓이’와 ‘같은 시간’을 근거로 조건을 평가했으므로 장점을 인정하는 말도 비판적 읽기에 해당한다.**

질문 02 글 속의 반론을 찾으면 그 반론에 동의한 건가요?

반론을 찾는 것은 견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반론이 타당한지는 제시한 근거를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문

[가] 민재는 분실을 줄이기 위해 공용 우산의 손잡이에 큰 번호를 붙이자고 했다.
[나] 수빈은 번호를 크게 붙여도 이용자가 반납하지 않으면 분실은 줄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 보기

활동	이 예문에서 하는 일
반론 파악	[나]가 번호 확대만으로 분실이 줄어든다는 기대에 맞서는지 확인함
반론 평가	번호의 크기와 반납·분실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충분한지 살핌

오해 바로잡기

✗ [나]가 반론이므로 번호를 크게 붙이는 방법은 효과가 전혀 없다.

○ **[나]는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론이라는 이유만으로 방법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질문 03 “설명이 별로예요”를 근거 있는 평가로 바꾸려면요?

평가할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판단을 말하면 됩니다.

예문

처음 참가하는 사람을 위한 종이 모형 안내문에 준비물이 적혀 있다. 그러나 사용할 종이의 크기는 적혀 있지 않다. 참가자는 미리 종이를 준비해 와야 한다.

구조 보기

평가 대상 · 기준 · 근거 · 판단

대상
처음 참가하는 사람을 위한
종이 모형 안내문

기준
참가자가 만들기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가?

근거
종이를 미리 준비해야 함
필요한 종이의 크기는 없음

판단
종이의 크기를 제시하여
준비 정보를 보완해야 함

근거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 · 판단은 그 근거에 따른 평가
네 칸은 평가의 요소이며 시간 순서가 아님

오해 바로잡기

✗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안내문의 부족한 점이 분명해진다.

○ **'미리 종이를 준비'해야 하는데 '크기'가 빠져 있다. 준비에 필요한 정보라는 기준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자고 평가한다.**

확인과 적용

문항 01 비판적 읽기의 태도

> 새 물품 보관법을 소개한 글은 이전 방법과 새 방법의 장단점, 비교한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단점을 더 많이 찾을수록 반드시 더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② 장점과 단점이 모두 나오므로 근거를 더 살필 필요가 없다.
③ 비교 조건과 근거를 살펴 뒷받침된 장점은 인정하고 한계도 점검한다.
④ 소개된 보관법이 마음에 들면 글의 수치도 모두 맞다고 본다.

문항 02 파악과 평가

> ㉠ “찬성자는 편리함을, 반대자는 비용을 근거로 들었다.”
> ㉡ “비용을 계산할 때 두 방법의 사용 기간을 같게 맞춘 점은 적절하다.”

각 문장이 하는 활동을 고를 말에서 골라 쓰세요.

고를 말 내용 파악 / 근거 있는 평가

문장	활동
㉠	( )
㉡	( )

문항 03 기준과 느낌

> 모형을 만들려는 초보자를 위한 안내문에는 준비물의 이름은 있지만 필요한 수량은 없다.

안내문의 목적에 맞는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초보자가 준비물을 갖출 수 있도록 각 준비물의 수량을 보완해야 한다.
② 내가 제목의 글자 모양을 싫어하므로 준비물 안내도 모두 틀리다.
③ 이름만 알면 누구나 수량을 아므로 보완할 정보는 전혀 없다.
④ 수량이 없으므로 소개한 준비물의 이름도 반드시 거짓이다.

문항 04 반론의 평가

> 운영자는 출입문을 하나 더 열면 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새 출입문 앞의 통로가 좁다는 이유로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론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반론을 말한 사람은 평소 어떤 색을 좋아하는가?
② 반론이 나왔으므로 출입문을 늘리는 방안은 무조건 실패하는가?
③ 운영자가 먼저 말했으므로 그 주장은 더 확인할 필요가 없는가?
④ 통로의 폭과 사람의 이동량을 고려할 때 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가?

문항 05 평가의 요소

> 처음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길 안내 글에 갈림길의 방향 표시가 없다. 한 독자는 “길을 찾는 데 필요한 표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평가 근거와 판단에 해당하는 말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고를 말 ㉠ 처음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길 안내 글 / ㉡ 갈림길의 방향 표시가 없음 / ㉢ 필요한 표시를 보완해야 함

근거: (　　) / 판단: (　　)

2 내적 준거

글 안의 내용·표현·짜임이 잘 맞나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 **내적 준거**	글 자체의 내용·표현·짜임에 초점을 둔 평가 기준	글의 표에는 12회, 바로 아래 설명에는 같은 활동을 15회라고 썼는지 대조함
★ **정확성**	정보·용어·수치가 분명하고 정확한가	같은 자료의 표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살핌
★ **적절성**	내용·설명 방법이 주장·목적에 맞는가	위치 안내에 필요한 경로와 기준점이 제시되는지 살핌
★ **유기성**	부분들이 중심 내용에 맞게 연결되는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에서 각 문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핌

★ = 이 단원의 핵심 용어. 나머지는 이해를 돕는 풀이말입니다.

준거 = 평가의 기준. 그 기준으로 살피는 활동을 이 학습지에서는 '점검'이라고 부릅니다.

연결 개념 **독서07-02.**

질문 04 앞뒤 말이 다르면 무조건 모순인가요?

기준 내적 · 정확성

> **정확성을 살피려면 대상·시간·조건이 같은데 함께 성립할 수 없는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달라진 설명까지 모순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문

[가] 같은 날 같은 체험실의 모든 참가자에 대해 앞에서는 "체험비가 없다", 뒤에서는 "체험비 2,000원을 낸다"라고 썼다. 별도 조건은 없다.
[나] 다른 안내문에는 "어린이 체험비는 없고, 성인은 2,000원을 낸다"라고 썼다.

구조 보기

함께 성립할 수 없는 말인가?

[가] 같은 대상 · 같은 날
모든 참가자: 체험비 없음
모든 참가자: 2,000원 냄

[나] 대상이 다름
어린이: 체험비 없음
성인: 2,000원 냄

진술이 서로 충돌함
실제 규칙은 별도로 확인

조건을 나누어 제시함
두 규칙이 함께 성립 가능

대상 · 시간 · 조건이 같은지부터 확인
다른 조건의 설명을 모순으로 만들지 않음

오해 바로잡기

✕ [나]에도 돈을 내는 경우와 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모순이다.

○ **[나]는 '어린이'와 '성인'으로 대상이 다르다. 같은 조건의 문장(진술)이 충돌하는 [가]와 구별해야 한다.**

질문 05 정보가 많으면 목적에 맞는 설명인가요?

기준 내적 · 적절성

> **정보의 양보다 설명 목적에 필요한 내용을 알맞은 방법으로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문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를 처음 찾는 사람을 위한 글이다. 글에는 보관소 지붕의 색과 재료를 길게 설명했지만, 정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구조 보기

설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인가?

목적: 처음 방문한 사람이 자전거 보관소를 찾음

있는 정보
지붕의 색과 재료
보관소를 알아보는 데 참고

① 내용: 빠진 정보
정문에서 이어지는 이동 경로
길을 나누는 기준점

② 방법: 필요한 내용을 알맞게 전달
경로를 나타낸 약도와 방향 설명을 더하면
처음 찾는 사람이 실제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됨

평가: 목적에 필요한 내용을 알맞은 방법으로 보완

오해 바로잡기

✗ 지붕에 대한 설명이 길고 자세하므로 길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도 충분하다.

○ **'위치를 처음 찾는 사람'에게는 이동 경로와 기준점이 필요하다. 지붕의 색은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도 빠진 경로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한 걸음 더

내용의 적절성은 목적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방법의 적절성은 그 정보를 전하는 설명 방법·자료가 알맞은지를 살핍니다. 경로는 필요한 내용이고, 약도와 방향 설명은 그 내용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질문 06 같은 낱말이 반복되면 문단들이 잘 연결된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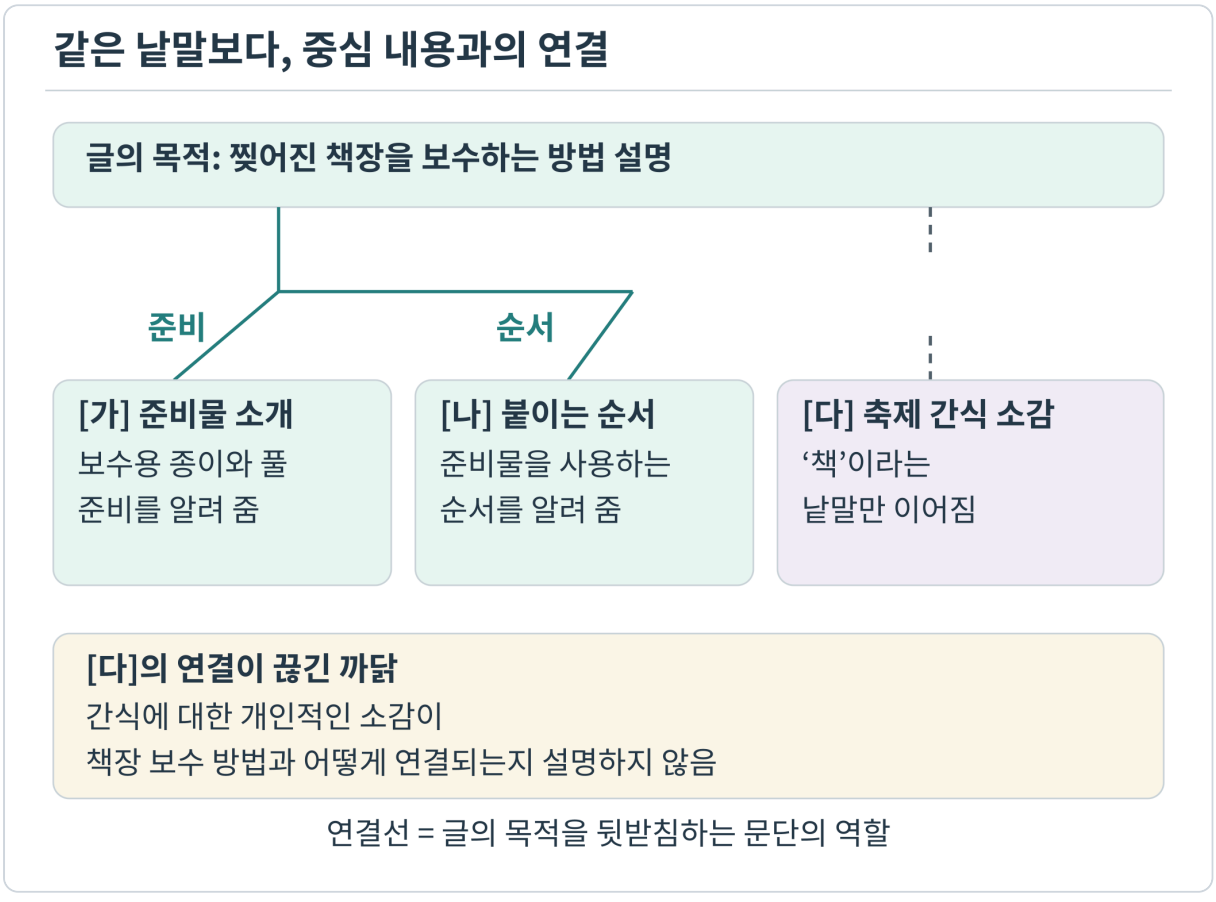
기준 내적 · 유기성

> **유기성은 각 문단이 중심 내용을 설명하는 데 맡은 역할과 문단 사이의 연결을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낱말이 반복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문

글의 목적: 찢어진 책장을 보수하는 방법을 설명함.
[가] 보수용 종이와 풀 등 준비물을 소개한다.
[나] 준비한 종이를 찢어진 부분에 붙이는 순서를 설명한다.
[다] 책을 주제로 한 축제에서 먹었던 간식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늘어놓는다. 보수 방법과의 관련 설명은 없다.

구조 보기



오해 바로잡기

✗ [다]에도 '책'이 나오므로 보수 방법을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한 문단이다.

○ **목적은 '찢어진 책장을 보수하는 방법'이다. [다]의 '간식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은 그 방법과의 연결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유기성은 부분들이 주제 아래 하나로 모이고(통일성) 서로 긴밀하게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확인과 적용

문항 06 같은 조건의 문장

> 같은 행사의 모든 참가자에 대해 안내문 첫 부분은 "개인 재료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끝부분은 "개인 재료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라고 썼다. 다른 조건이나 변경 안내는 없다.

글 내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① 실제 규칙이 첫 문장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같은 참가 대상에게 적용되는 준비물 안내가 서로 맞지 않는다.

③ 끝부분에 나왔으므로 앞의 안내가 폐지되었다.

④ 개인 재료를 가져온 학생은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다.

문항 07 다른 조건 구별

> 안내문에 "오전 체험에는 예약이 필요하다. 오후 체험에는 예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적혀 있다.

이 두 문장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필요하다는 말과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어 반드시 모순이다.

② 체험 시간대라는 조건이 다르므로 두 규칙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③ 오후 규칙이 나왔으므로 오전에도 예약이 필요하지 않다.

④ 두 문장만으로 실제 예약 시스템이 고장 났음을 알 수 있다.

문항 08 문단의 역할

> 글의 목적: 작은 화분의 받침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함.
> ㉠ 재료의 크기와 개수를 소개한다.
> ㉡ 재료를 이어 붙이는 순서를 설명한다.
> ㉢ 글쓴이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소개한다. 받침 만들기와의 관련 설명은 없다.

글의 중심 내용과 연결되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문단의 기호를 쓰세요.

답: ( )

문항 09 목적에 맞는 내용과 방법

> 두 공연장의 좌석 배치를 설명하는 글이다. 객석 모양과 출입구 위치를 알려 주려 하지만, 실제 글에는 공연장의 개관 연도만 나와 있다.

글의 설명 목적에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완은 무엇인가요?

① 개관 연도만 세 번 반복하여 제시한다.

② 공연장과 관계없는 날씨 속담을 더 싣는다.

③ 배치 정보를 빼고 글의 길이만 더 늘린다.

④ 좌석과 출입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배치도와 설명을 제시한다.

문항 10 중심 내용과 연결

> 책갈피 사용법을 설명하는 글의 마지막 문단은 “이상과 같이 책갈피를 접어 페이지에 끼우면 된다”라고 요약한다.

마지막 문단의 유기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살필 것은 무엇인가요?

① 앞에서 설명한 접기와 끼우기 과정이 이 요약과 맞게 이어지는가?

② 마지막 문단의 문장 수가 앞의 모든 문단과 같은가?

③ 내가 책갈피의 색을 좋아하는가?

④ 앞 문단과 같은 낱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드시 충분한가?

3 외적 준거

글과 필자·독자·현실의 관계는 어떤가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 **외적 준거**	글과 필자·독자·현실 등의 관계에 초점을 둔 평가 기준	안내 글의 운영 시간을 해당 시설의 현행(지금 적용되고 있는) 운영표와 대조함
★ **신뢰성**	출처·필자·조사 방법을 믿을 근거가 있는가	주장의 출처와 조사 대상·방법을 확인함
★ **타당성**	주장과 내용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가	묶음 5에서 자세히
★ **효용성**	독자의 목적과 상황에 도움이 되는가	묶음 6에서 자세히
★ **공정성**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었는가	묶음 5에서 자세히

★ = 이 단원의 핵심 용어. 나머지는 이해를 돕는 풀이말입니다.

연결 개념 **독서07-03.**

질문 07 글 안에서 앞뒤가 맞으면 실제로도 맞는 정보인가요?

기준 **글 밖 자료와 대조 · 정확성**

> **내부 문장이 일치하는 것과 현실의 정보가 정확한 것은 다릅니다. 현실에 관한 정보는 알맞은 외부 자료와도 대조해야 합니다.**

예문

체험장 소개 글의 본문과 표에는 모두 개장 시각이 오전 10시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운영 기관이 공지한 현행 운영표에는 이 글이 소개하는 같은 기간의 개장 시각이 오전 9시로 적혀 있다.

구조 보기

글 안의 일치와 실제 정보의 정확성

평가 대상: 체험장 소개 글
본문: 오전 10시 개장
표: 오전 10시 개장
내적 준거로 점검: 서로 일치함

별도 현행 운영표
같은 기간의
개장 시각:
오전 9시

외적 준거로 점검: 소개 글과 현행 운영표가 다름
글 안에서 일치해도 현실의 시각까지 맞는 것은 아님
같은 시설과 기간의 현행 자료에 맞게 확인·수정

연결선 = 서로 대조하는 자료 · 시간이나 원인의 흐름이 아님

오해 바로잡기

✕ 본문과 표가 모두 10시라고 했으니 실제 개장 시각도 10시로 확인된다.

○ **글 안에서는 일치하지만, 같은 기간을 다룬 '현행 운영표'와는 다르다. 10시라는 안내는 외부 자료와 대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바깥 자료와 견줄 때는 같은 대상·같은 시점의 자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전 자료는 그때의 기록일 뿐 지금의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 08 '정확성'이라는 말만 보고 내적·외적을 나눠도 되나요?

기준 내적·외적 준거의 구별

주로 쓰이는 기준은 앞에서 본 평가 기준 지도처럼 나뉩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로 무엇과 무엇을 견주는지 확인하며, 문제에서 준거를 제시하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예문

소식지의 표에는 참가 인원이 60명으로, 바로 아래 설명에는 같은 참가 인원이 50명으로 적혀 있다. 독자는 소식지 안의 두 수치를 대조할 수도 있고, 운영팀이 따로 보관한 참가 명부와 대조할 수도 있다.

구조 보기

평가 활동	초점
소식지 안의 표 60명과 설명 50명을 대조함	내적 준거: 글 자체의 내용이 맞물리는가
운영팀의 참가 명부와 소식지의 수치를 대조함	외적 준거: 글의 정보가 바깥 자료와 맞는가

오해 바로잡기

✕ 수치를 확인하는 활동은 이름이 정확성이므로 언제나 내적 준거이다.

○ **'소식지 안의 두 수치'를 대조하는지, 바깥의 '참가 명부'와 대조하는지에 따라 평가의 초점이 달라진다.**

한 걸음 더

앞에서 본 **평가 기준 지도**처럼, 정확성·적절성·유기성은 글 안을, 신뢰성·타당성·공정성·효용성은 글 밖과의 관계를 살필 때 주로 씁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견주는가'로 판단합니다. 시험지에 함께 실렸어도 평가 대상 글과 별도로 제시된 자료와의 대조는 외적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09 출처가 적혀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기준 외적 · 신뢰성

> **작성자의 관련 전문성, 출처의 실제 내용, 조사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그 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이라고 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문

> 재사용 주머니를 판매하는 업체가 "다른 주머니보다 오래 쓴다"는 홍보 글을 올렸다. 글에는 자체 시험 보고서라는 출처가 있지만, 비교한 제품과 사용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조 보기

출처가 있다는 말에서, 실제 내용 확인으로

홍보 글: “다른 주머니보다 오래 쓴다.”
작성자: 판매 업체 / 출처 표시: 자체 시험 보고서

작성자
관련 전문성은?
이해관계는?

자료
실제 보고서는?
비교한 제품은?

방법
사용 조건은?
재확인 가능한가?

현재 판단: 비교 대상과 사용 조건이 공개되지 않음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제품이 반드시 나쁘거나 주장이 거짓임

오해 바로잡기

- ✕ 자체 시험 보고서라는 출처가 있으니 오래 쓴다는 말은 확인된 사실이다.
- ✕ 업체가 쓴 글이므로 주머니가 오래 간다는 말은 반드시 거짓이다.
- ○ **‘자체 시험’이고 ‘사용 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을 더 확인해야 한다. 이해관계와 정보 부족은 추가 점검의 이유이지 곧바로 거짓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확인과 적용

문항 11 바깥 자료와 대조

> 평가 대상인 소식지는 “올해 봄 운동 교실은 총 18회 열렸다”라고 썼다. 운영 기관은 해당 교실의 공식 진행 기록을 별도 자료로 제공한다.

소식지의 정보를 외적 준거로 점검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① 소식지 제목과 본문이 같은 주제를 다루는지 살핀다.

② 소식지 안의 표와 바로 아래 설명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핀다.

③ 같은 교실과 기간의 공식 진행 기록을 소식지의 18회와 대조한다.

④ 소식지 문단이 설명 순서에 맞게 배열되어 있는지 살핀다.

문항 12 준거의 초점

> 평가 대상: 박물관 소개 글.
> ㉠ 소개 글 안의 표와 본문에 쓰인 같은 전시실의 면적을 대조한다.
> ㉡ 박물관이 별도로 공개한 시설 기록과 소개 글의 면적을 대조한다.

각 활동의 초점을 고를 말에서 골라 쓰세요.

고를 말 내적 준거 / 외적 준거

㉠: ( ) / ㉡: ( )

문항 13 출처 표시 이후

> 가방의 튼튼함을 홍보하는 글에 “시험 보고서에 따름”이라는 말만 있고, 보고서 제목이나 시험 조건은 없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① 보고서라는 말이 있으므로 결과의 적용 범위도 모두 믿는다.

② 조건이 없으므로 가방은 반드시 쉽게 찢어진다고 정한다.

③ 광고의 글자 크기만 보고 보고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한다.

④ 어떤 보고서인지와 시험 대상·방법·조건을 확인한다.

문항 14 이해관계와 판단

> 새 텀블러를 판매하는 업체가 자사 제품의 보온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검토자는 해당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려 한다.

검토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판매자가 공개한 시험은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거짓이다.

② 판매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시험 조건과 재확인 가능한 자료를 살핀다.

③ 판매자는 제품을 잘 아니까 시험 방법은 살피지 않아도 된다.

④ 제품 색이 예쁘면 시험 결과도 정확하다고 본다.

문항 15 시점과 적용 범위

> 독자는 오늘 갈 체육관의 운영 시간을 알아보려 한다. 검색한 글은 3년 전 시간표를 소개하며, 운영 기관의 현행 시간표와는 다르게 적혀 있다.

독자의 목적에 맞는 판단은 무엇인가요?

① 현재 운영은 현행 시간표로 확인하고, 과거 정보와 시점을 구별한다.

② 오래된 글이므로 그 글의 과거 운영 기록도 모두 거짓이다.

③ 시간표의 글자 수가 더 많은 쪽이 현재 정보이다.

④ 두 시간이 다르므로 체육관은 오늘 반드시 문을 닫는다.

4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계산이 맞으면 자료 사용도 맞나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분모	비율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의 수 (수학에서 배운 '기준량')	응답자 40명 중 24명이 찬성했다면 분모는 응답자 40명
조사 범위	조사에 포함된 대상·시간·조건	지난 토요일 체험 참가자의 응답은 그 조사 범위 안의 자료
대표성	표본(전체 가운데 실제로 조사한 일부)이 알아보려는 전체의 특성을 고르게 반영하는 정도	어느 한 이용 시간대의 응답만 전체 이용자에게 넓히지 않는지 살핌
유도 질문	특정 응답을 하도록 한쪽 판단을 부추기는 질문	“편리한 이 제도에 찬성하시지요?”처럼 장점을 미리 단정함

★ = 이 단원의 핵심 용어. 나머지는 이해를 돕는 풀이말입니다.

연결 개념 **독서07-04.**

질문 10 비율 계산이 맞으면 전체에 대한 결론도 맞나요?

기준 **자료의 정확성 · 일반화의 적절성**

> **계산이 맞는지와 조사한 집단을 더 넓은 집단에 적용해도 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예문

이 지역 주민 가운데 야간 공예 체험 참가자 40명에게 새 시간대의 만족도를 물었더니 24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작성자는 “이 지역 주민의 60%가 새 시간대에 만족한다”라고 썼다. 다른 주민의 의견은 조사하지 않았다.

구조 보기

맞는 계산과, 아직 모르는 전체 비율

이 지역 주민 전체
전체는 조사하지 않음 · 만족 비율 ?

야간 공예 체험 참가자 40명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 24명
24 ÷ 40 = 60%
이 40명 안의 만족 비율

\ 넓힐 근거 없음

내용 판단: 주민 전체의 비율이 60%인가?
? 이 자료만으로 실제 전체 비율은 알 수 없음

자료 사용 평가: 이 조사만으로 전체 비율을 확정해도 되는가?
× 조사 집단을 바꾸어 확정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전체 비율을 모름 ≠ 전체 비율이 60%가 아님을 입증함

오해 바로잡기

✕ 24÷40=60%이므로 지역 주민 전체에 관한 문장도 입증되었다.

○ **60%는 '야간 공예 체험 참가자 40명' 안의 비율이다. '이 지역 주민' 전체의 만족 비율은 이 조사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살필 것	이 조사로 할 수 있는 판단
내용이 사실인가?	참가자 40명 중 24명, 곧 60%가 만족했다. 주민 전체의 실제 만족 비율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린 방식이 적절한가?	참가자들이 주민 전체를 고르게 대표하는지(대표성)를 확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전체 비율을 확정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주민 전체의 실제 비율은 아직 알 수 없다"와 "이 조사만으로 전체 비율을 확정하면 안 된다"는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 11 숫자가 크면 언제나 더 많거나 더 좋은 건가요?

기준 자료의 정확성

비율의 분모, 수치의 단위, 조사 기간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의 숫자를 그대로 견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문

[가] A 모임은 응답자 10명 중 8명, B 모임은 응답자 30명 중 18명이 찬성했다.
[나] 한 전시의 첫 기록은 2일간 방문 120회, 둘째 기록은 5일간 방문 200회이다. 같은 사람이 다시 방문하면 방문 횟수에 다시 포함한다.

구조 보기

수 · 비율 · 기간 · 단위를 나누어 보기

[가] 찬성한 사람의 수와 비율

A 모임
응답 10명 중 찬성 8명
찬성 비율: 80%

B 모임
응답 30명 중 찬성 18명
찬성 비율: 60%

사람 수는 B가 많음 · 찬성 비율은 A가 높음

[나] 총 방문 횟수와 하루 평균

첫 기록 · 2일
총 120회
하루 평균: 120 ÷ 2 = 60회

둘째 기록 · 5일
총 200회
하루 평균: 200 ÷ 5 = 40회

총횟수는 둘째가 많음 · 하루 평균은 첫째가 많음

분모와 기간을 맞춘 뒤 견줌
방문 횟수는 중복 방문을 뺀 사람 수와 다를 수 있음

오해 바로잡기

✕ [나]에서 200이 120보다 크므로 하루 평균 방문 횟수도 반드시 더 많다.

○ **‘2일간’과 ‘5일간’이라는 기간이 다르다. 하루 평균은 각각 60회와 40회이며, 방문 횟수를 서로 다른 사람의 수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

질문 12 설문에 답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한 사람인가요?

기준 자료의 신뢰성(수집 방법)

응답하지 않은 이유와 의견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이 한쪽 답을 유도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문

운영팀은 초대한 50명에게 “시간을 아껴 주는 훌륭한 새 예약제에 찬성하시지요?”라고 물었다. 20명만 응답했고 그중 14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30명의 의견은 확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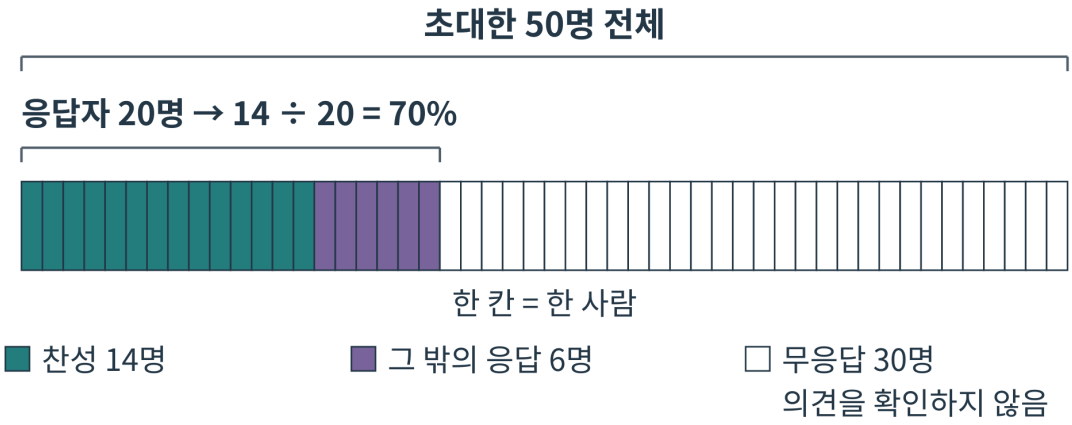
구조 보기

설문 문구와 응답 범위를 함께 확인

질문 문구의 점검

“시간을 아껴 주는 훌륭한 새 예약제에 찬성하시지요?”

‘훌륭한’ · ‘찬성하시지요’ → 한쪽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



자료 사용에서 지킬 범위

응답자 비율과 초대한 전체의 비율을 구별함

무응답은 반대와 같지 않음

오해 바로잡기

✕ 응답하지 않은 30명은 모두 예약제에 반대했다고 보아도 된다.

○ **30명은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다’. 반대와 무응답을 구별하고, ‘훌륭한’·‘찬성하시지요’가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도 점검한다.**

질문 13 그래프의 막대가 두 배면 실제 수치도 두 배인가요?

기준 자료의 정확성(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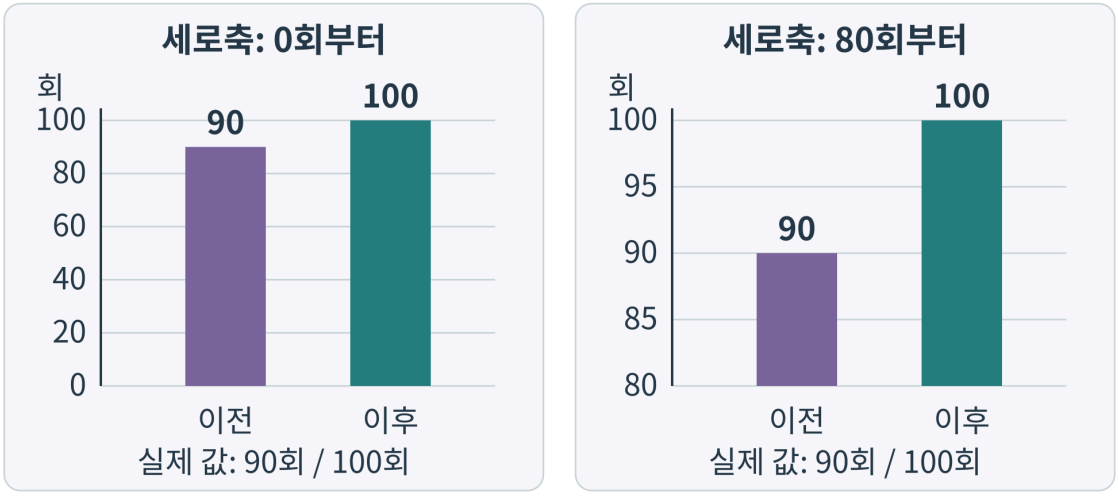
막대의 길이만 보지 말고 세로축의 시작값·눈금·단위를 확인합니다. 일부 구간만 나타내면 차이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문

한 기록에서 이용 횟수는 이전 90회, 이후 100회였다. 이를 세로축이 80회에서 시작하는 막대그래프로 그렸다. 축의 중간 생략은 없다.

구조 보기

같은 90회·100회도 시작값에 따라 달라 보임



실제 차이: 100 − 90 = 10회
오른쪽 막대의 보이는 길이는 두 배지만 실제 값은 두 배가 아님
시작값과 눈금을 확인하고 기록된 수치를 함께 읽음

오해 바로잡기

✕ 그림에서 이후 막대의 보이는 길이가 두 배이므로 이용 횟수도 두 배이다.

○ **세로축이 '80회'에서 시작한다. 실제 값은 90회와 100회이므로 10회 늘었으며, 100회는 90회의 두 배가 아니다.**

한 걸음 더

축이 0에서 시작하지 않는 그래프가 언제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작값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 수치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확인과 적용

문항 16 계산과 조사 대상

> 주말 연극 체험에 참가한 30명 중 21명이 다음 체험을 원했다. 보고서는 이를 “마을 주민의 70%가 다음 체험을 원한다”라고 정리했다.

자료 사용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① 21명을 30명으로 나누면 70%가 아니므로 계산만 잘못되었다.

② 70%가 맞으므로 주민 전체를 설명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다.

③ 조사한 체험 참가자의 비율을 마을 주민 전체의 비율로 넓혔다.

④ 이 조사로 마을 주민의 실제 비율은 70%가 아니라고 입증되었다.

문항 17 찬성 수와 비율

> A 모임은 응답자 12명 중 9명, B 모임은 응답자 20명 중 12명이 찬성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모임을 A 또는 B로 쓰세요.

질문	모임
찬성한 사람의 수가 더 많은 모임은?	( )
응답자 중 찬성 비율이 더 높은 모임은?	( )

문항 18 기간을 맞춘 판단

> 전시관의 방문 기록은 첫 기간 3일 동안 150회, 둘째 기간 6일 동안 240회이다. 두 기간 모두 하루 종일 같은 시간만큼 문을 열었다.

기록을 바르게 견준 것은 무엇인가요?

① 240이 150보다 크므로 하루 평균도 반드시 둘째가 많다.

② 총 방문 횟수는 둘째가 많지만 하루 평균 방문 횟수는 첫째가 많다.

③ 하루 평균은 두 기간 모두 50회로 같다.

④ 방문 횟수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온 경우를 제외한 인원이다.

문항 19 단위 구별

> 한 달의 체험실 입장 횟수는 300회이다. 같은 사람이 여러 날 들어와도 입장할 때마다 한 번씩 센 기록이다.

이 자료를 설명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입장은 300회이지만 서로 다른 방문자의 수는 알 수 없다.

② 서로 다른 방문자가 반드시 300명이다.

③ 모든 방문자는 정확히 한 번씩 입장했다.

④ 반복 입장이 포함되므로 총 300회라는 기록도 반드시 틀리다.

문항 20 무응답의 의미

> 40명에게 설문을 보냈다. 25명이 답했고 그중 15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15명은 답하지 않았다.

주어진 정보로 확인되면 ○, 충돌하면 ×,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면 ?를 쓰세요.

판단할 문장	기호
응답자 중 찬성 비율은 60%이다.	( )
설문에 답하지 않은 15명은 모두 반대한다.	( )
설문을 보낸 40명 모두가 응답했다.	( )

문항 21 질문 문구 점검

> 설문 문구가 “불편을 없애 주는 뛰어난 새 보관함에 당연히 찬성하시겠지요?”로 되어 있다.

응답을 한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을 줄이는 수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좋은 보관함”만 “아주 좋은 보관함”으로 바꾼다.

② 반대 응답을 할 수 없도록 찬성 선택지만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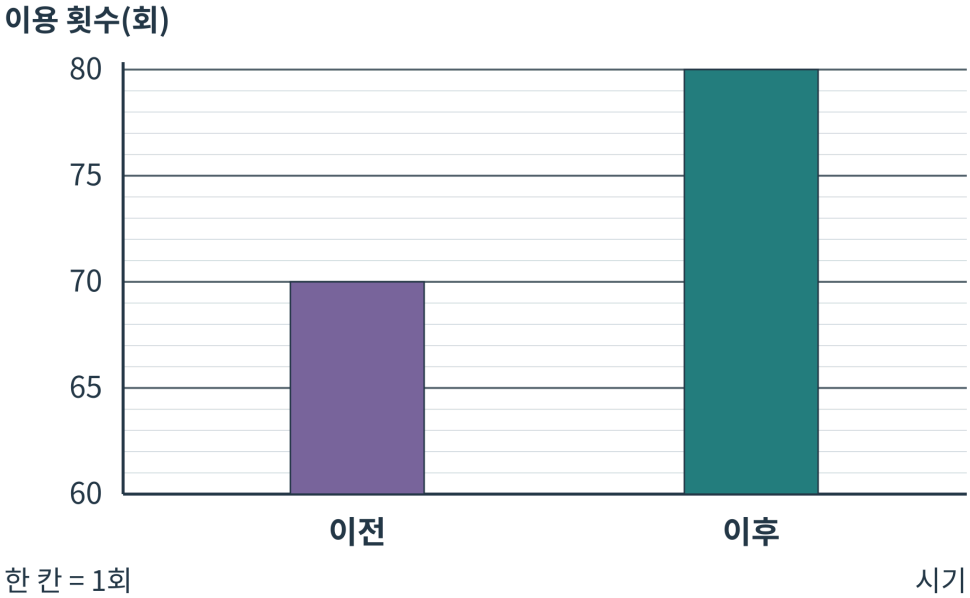
③ 질문은 그대로 두고 종이의 크기만 줄인다.

④ “도입에 어떤 입장입니까?”로 묻고 찬성·반대·판단 유보를 둔다.

문항 22 축과 실제 수치

> 이전 이용 횟수는 70회, 이후는 80회이다. 세로축을 60회에서 시작해 막대를 그렸더니 보이는 길이가 각각 10칸, 20칸이 되었다. 한 칸은 1회이다.

이전과 이후의 이용 횟수



그래프를 설명한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이후 이용 횟수는 이전의 정확히 두 배인 140회이다.

② 세로축이 0이 아니므로 기록된 70회와 80회도 반드시 거짓이다.

③ 막대의 보이는 길이는 두 배지만 실제 이용 횟수는 70회에서 80회로 10회 늘었다.

④ 두 막대의 길이 차이는 20회이므로 이용 횟수도 20회 늘었다.

문항 23 자료의 적용 시점

> 안내 글은 작년 겨울 시간표를 근거로 이번 여름 수영장 운영 시간을 안내한다. 계절이 바뀐 뒤 같은 시간표가 유지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현재 운영 시간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골라 기호를 쓰세요.

고를 말 ㉠ 이번 여름의 현행 운영표 / ㉡ 글쓴이가 좋아하는 수영복 색 / ㉢ 지난해 안내문의 글자 수

답: (　　)

5 논증의 타당성과 공정성

근거가 결론을 충분히 뒷받침하나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 **타당성**	주장과 내용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가	우리 모임에서 시간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실제 시간 기록으로 뒷받침하는지 살핌
★ **공정성**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었는가	관련된 반대 근거를 빼거나 상대의 조건을 바꾸지 않았는지 살핌
★ **논증**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	대기 기록을 근거로 창구 운영의 변경을 제안함
결론의 강도	결론을 얼마나 넓게, 얼마나 단정적으로 말하는지	“도움이 될 수 있다”와 “언제나 유일한 원인이다”는 강도가 다름
다른 요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조건	같은 시기에 이용자 수나 담당 인원이 달라졌는지 살핌
반대 근거	해당 주장과 맞지 않거나 그 주장을 약하게 하는 정보	모두 편리하다는 주장과 달리 일부 이용자가 겪은 불편을 확인함

★ = 이 단원의 핵심 용어. 나머지는 이해를 돕는 풀이말입니다.

연결 개념 **독서07-05.**

한 걸음 더

독서06에서는 ‘전제가 맞다면 결론이 따라 나오는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든 근거가 주장을 충분히 받쳐 주는가’를 봅니다.

질문 14 많이 쓰는 방법이면 우리에게도 효과가 입증된 건가요?

기준 외적 ·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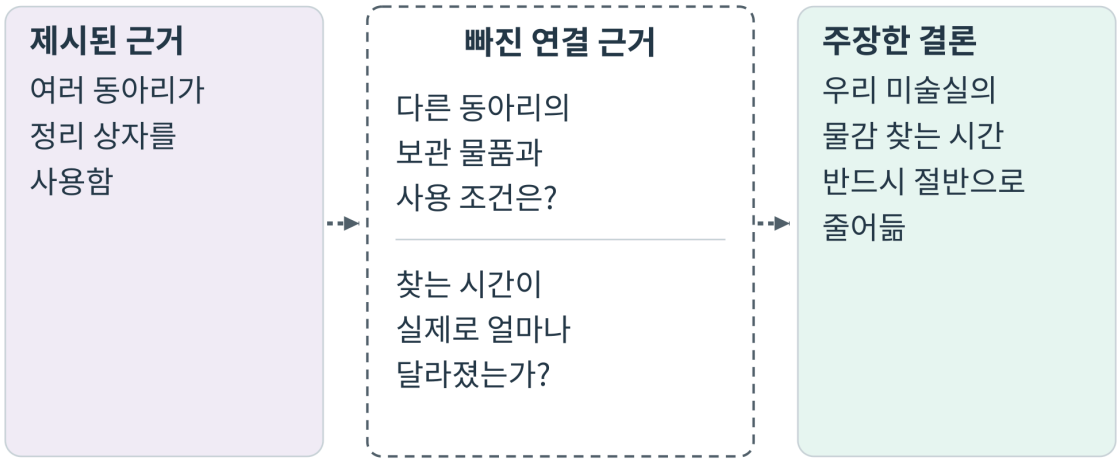
인기나 사용 사례는 참고할 수 있지만, 우리 상황에서 주장한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

제안자는 “여러 동아리가 이 정리 상자를 쓰니 우리 미술실의 물감 찾는 시간도 반드시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동아리들이 무엇을 보관하는지, 찾는 시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구조 보기

근거와 결론 사이에 무엇이 빠졌나?



사용 사실만으로 특정 효과의 크기를 확정할 수 없음
화살표 = 근거가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살필 방향

오해 바로잡기

✕ 여러 동아리가 사용하므로 우리 미술실의 시간 단축 효과도 절반으로 확정할 수 있다.

○ **제시된 것은 ‘사용’ 사실이다. ‘물감 찾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결론에는 사용 조건과 실제 효과에 관한 근거가 더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말한 사람이 좋거나 싫다는 느낌만으로 논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필자의 전문성·이해관계는 신뢰성을 살필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근거가 주장을 받쳐 주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15 방법을 바꾼 뒤 좋아졌으면 그 방법만의 효과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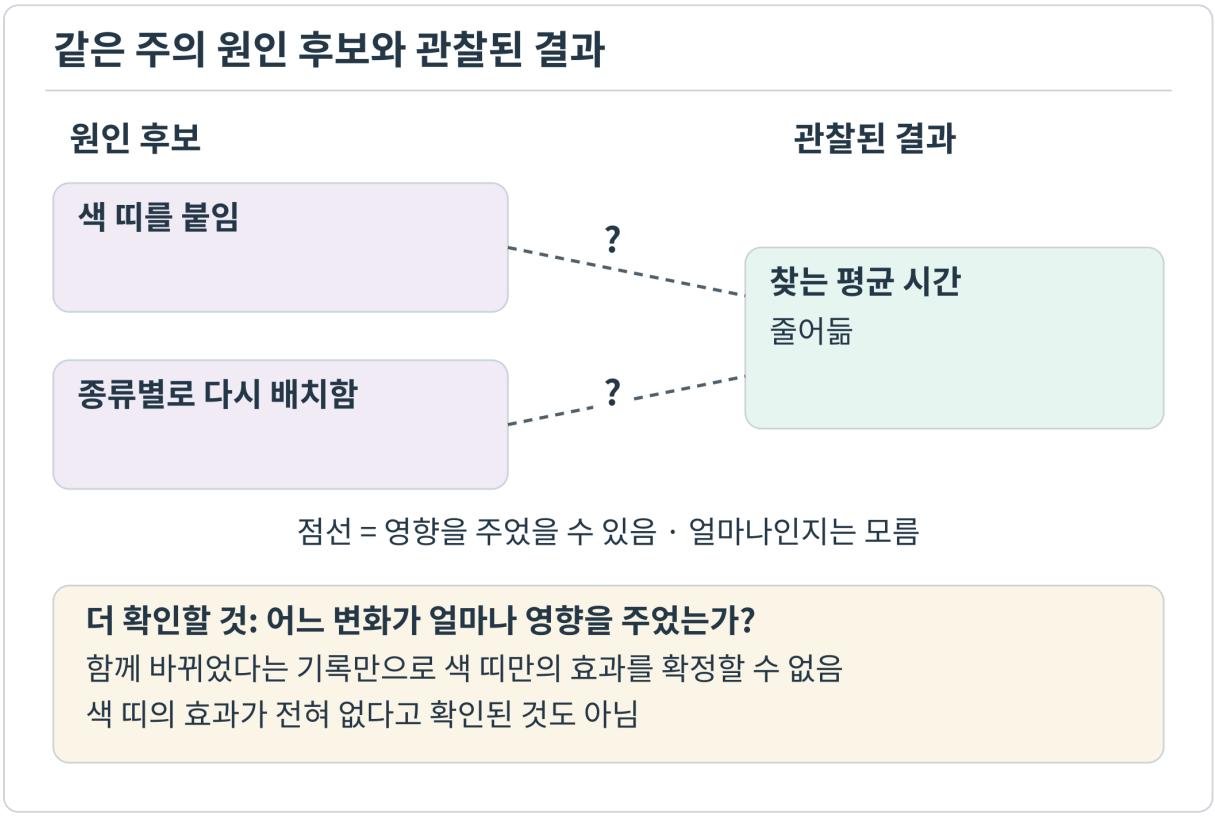
기준 외적 · 타당성

시간상 뒤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유일한 원인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기의 다른 변화와 비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

대여 도구에 색 띠를 붙인 주에 도구를 찾는 평균 시간이 줄었다. 같은 주에 도구도 종류별로 다시 배치했다.

구조 보기



좋은 평가의 예 “색 띠만의 효과라고 단정하려면 배치 변경의 영향도 구별해야 한다.”

오해 바로잡기

- ✗ 색 띠를 붙인 주에 시간이 줄었으니 색 띠만의 효과이다.
- ✗ 종류별 배치도 바뀌었으므로 색 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색 띠'와 '종류별 배치'가 함께 바뀌었다. 어느 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추가로 살펴야 하며, 색 띠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질문 16 찬반을 같은 분량으로 쓰면 공정한 글인가요?

기준 외적 · 공정성

> **문장 수보다 관련 근거를 충실히 다루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가 충분한 쪽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문

학교 정원의 긴 의자 설치를 다룬 글은 휴식 공간이 늘어난다는 장점을 세 문장으로 설명했다. 통로가 좁아진다는 반대 의견은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실제 통로 폭을 재어 설치 위치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구조 보기

같은 문장 수보다, 관련 근거를 충실하게

장점 · 세 문장
긴 의자를 놓으면
쉴 공간이 늘어남

반대 의견 · 한 문장
긴 의자를 놓으면
통로가 좁아짐

글이 제안한 점검과 조정
통로 폭을 실제로 재고 설치 위치를 조정함
관련 반대 의견을 다루고 조정 방안을 제시함

문장 수의 차이만으로 불공정하다고 정하지 않음
한쪽 결론을 채택해도 근거를 충실하게 다룰 수 있음

오해 바로잡기

✕ 장점이 세 문장이고 반대 의견이 한 문장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불공정하다.

○ **‘통로가 좁아진다’는 관련 반대 의견을 다루고 ‘폭을 재어’ 위치를 조정하자고 했다. 문장 수의 차이만으로 공정성을 판정하지 않는다.**

질문 17 상대 말을 짧게 요약해서 반박하면 늘 괜찮나요?

기준 외적 · 공정성

요약해도 상대가 말한 조건과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더 극단적인 주장으로 바꾸어 공격하면 원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되지 못합니다.

예문

원래 의견: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점심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
반박하는 글: “이 사람은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장을 영원히 닫자고 한다. 그러면 야외 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

구조 보기

요약해도 조건과 범위를 지키기

원래 의견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점심 운동을 허용

반박문이 바꾼 의견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장을 영원히 닫음

바뀐 조각
조건: 비가 오는 날 → 날씨와 관계없이
행동·범위: 실내 운동 허용 → 운동장을 영원히 폐쇄

평가
바뀐 주장에 반대 이유를 붙여도
원래 의견의 문제를 입증한 것은 아님

오해 바로잡기

✕ 반대 이유를 붙였으므로 원래 의견을 정확히 반박했다.

○ **'비가 오는 날'의 실내 운동을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장을 '영원히 닫자'는 말로 바꿨다. 바뀐 주장을 공격했으므로 원래 의견의 문제를 입증하지 못했다.**

확인과 적용

문항 24 유행과 효과

> 제안자는 "다른 동아리에서 널리 쓰는 회의 앱이므로 우리 모임의 회의 시간도 반드시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회의 시간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널리 쓴다는 사실과 우리 모임의 시간 단축 효과를 구별하여 실제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널리 쓰이므로 회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결론도 충분하다.

③ 시간 자료가 없으므로 회의 앱은 어떤 장점도 없다고 확인되었다.

④ 앱을 제안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효과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항 25 같은 시기의 변화

> 운동 도구를 색깔별로 나누어 둔 주에 담당자도 한 명 더 배치했다. 도구를 빌리는 평균 대기 시간이 줄었다.

이 관찰로 결론 내릴 때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담당자가 늘었으므로 정리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② 대기 시간이 줄었으므로 담당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

③ 정리와 담당자 증가의 영향을 구별해야 단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정리한 뒤 줄었으므로 정리만이 유일한 원인이다.

문항 26 확인할 다른 요인

> 매점 앞에 줄 서는 표시를 붙인 뒤 대기 시간이 줄었다. 글에는 표시를 붙이기 전후의 구매자 수와 판매 직원 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표시만의 효과인지 점검할 때 추가로 확인할 두 항목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고를 말 ㉠ 전후의 구매자 수 / ㉡ 전후의 판매 직원 수 / ㉢ 담당자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

답: ( ), ( )

문항 27 빠진 반대 근거

> 공용 책상 확대에 찬성하는 글이 쉬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소개했다. 작성자는 통로 폭을 측정한 결과 이동이 어려워진다는 자료를 확보했지만 글에는 싣지 않았고, “아무 불편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결론 냈다.

타당성과 공정성을 함께 점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찬성 문장이 더 길기만 하면 그 밖의 근거는 볼 필요가 없다.

② 빠진 통로 폭 자료까지 고려하여 “아무 불편도 없다”는 결론을 점검한다.

③ 측정 자료가 불리하므로 독자에게 보이지 않아야 공정하다.

④ 책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통로 폭 자료는 자동으로 거짓이다.

문항 28 분량과 공정성

> 토론 정리 글은 찬성 측의 근거를 두 문장, 반대 측의 근거를 한 문장으로 소개했다. 양쪽의 핵심 이유와 조건은 모두 정확히 담았고, 서로 다른 근거의 강도도 설명했다.

이 글을 평가한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찬반 문장 수가 다르므로 실제 내용과 관계없이 반드시 불공정하다.

② 어느 쪽 근거가 더 강한지 설명하면 언제나 불공정하다.

③ 반대 측의 이유는 짧게 나왔으므로 글에 아예 제시되지 않았다.

④ 문장 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항 29 상대 주장을 바꾼 반박

> 원래 의견은 “체육관을 쓰지 않는 시간에만 지역 모임에 빌려 주자”이다. 반박문은 “이 의견은 학생 수업을 전부 없애고 체육관을 외부에 넘기자는 것이다”라고 썼다.

반박문의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원래 의견도 학생 수업을 전부 없애자고 분명히 주장했다.

② 반박문이 원래 의견보다 길어서 내용과 관계없이 틀렸다.

③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조건을 지우고 원래 의견을 더 극단적으로 바꾸었다.

④ 반박문에 체육관이라는 낱말이 있으므로 원래 의견을 그대로 다루었다.

문항 30 정확히 겨냥하기

> 의견: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운동장 아침 모임을 실내에서 하자.”

이 의견이 그대로 유지해야 할 조건을 글에서 찾아 빈칸에 알맞게 쓰세요.

조건: ( )에는 아침 모임을 실내에서 함.

문항 31 말한 사람과 논증

> 발표자가 제안한 책상 배치안에 실제 통로 폭을 측정한 자료가 붙어 있다. 독자는 발표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

논증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①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측정 자료는 확인하지 않아도 거짓이다.

② 발표자가 자신 있게 말하면 통로 폭은 재확인할 필요가 없다.

③ 발표자와 화해하면 어떤 배치안도 반드시 타당해진다.

④ 발표자에 대한 호감과 별개로 측정 자료가 배치안의 장점을 뒷받침하는지 살핀다.

6 효용성과 평가 문장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글인가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 **효용성**	독자의 목적과 상황에 도움이 되는가	처음 만드는 독자에게 제작 순서가 도움이 되는지 살핌
독자의 목적	독자가 글을 통해 하려는 일	만들기를 시작하려는지, 작품의 겉모습을 감상하려는지 구별함
평가 대상	판단하려는 글이나 그 글의 특정 부분	글 전체가 아니라 경로 안내 부분만 평가할 수도 있음
보완	부족한 점을 채우거나 고쳐 더 낫게 함	준비물 목록에 빠진 규격을 넣어 실제로 준비할 수 있게 함

★ = 이 단원의 핵심 용어. 나머지는 이해를 돕는 풀이말입니다.

연결 개념 **독서07-06.**

질문 18 내가 쓰기 어려우면 모든 독자에게 쓸모없는 글인가요?

기준 외적 · 효용성

효용성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 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독자에게 부족한 점을 모든 독자에게 넓히지 않습니다.

예문

모형 작품 소개 글에 완성 사진과 크기는 있지만 조립 순서는 없다. 지우는 작품을 감상하려고 읽고, 다은은 처음으로 같은 종류의 모형을 조립하려고 읽는다.



구조 보기

같은 글, 다른 목적의 독자

작품 소개 글에 있는 것: 완성 사진과 크기
없는 것: 조립 순서

지우 · 감상하려 함
작품의 모습과 크기를 살핌
있는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음

다은 · 처음 조립하려 함
조립 순서를 알아야 함
과정 설명을 더 보완해야 함

조립에 부족하다고 감상에도 쓸모없는 것은 아님
효용성은 독자 · 목적 · 상황과 연결해 판단

오해 바로잡기

✕ 다은이 조립 순서를 알 수 없으므로 이 글은 지우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완성 사진과 크기'는 감상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처음 조립하려는 다은에게는 '조립 순서'를 보완해야 한다.**

질문 19 도움이 되는 글이면 틀린 정보는 넘어가도 되나요?

기준 효용성 · 정확성

> **효용성과 정확성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유용한 부분은 인정하되, 잘못된 정보는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문

산책 코스를 고르는 안내 글은 길이와 경사를 설명해 선택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휴식 장소 한 곳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구조 보기

평가할 부분	판단
길이와 경사를 설명한 부분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됨
이름이 틀린 휴식 장소	정확한 이름으로 바로잡아야 함
글 전체	유용한 정보를 인정하면서 확인된 오류를 수정함

오해 바로잡기

✕ 코스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되니 틀린 장소 이름도 그대로 두어도 된다.

○ **'길이와 경사'가 유용하다는 점이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오류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

질문 20 근거 있는 평가 문장은 어떻게 쓰나요?

기준 근거 있는 평가 문장

대상·기준·근거·판단을 연결해 씁니다. 근거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할 점과 보완할 점을 말합니다.

예문

처음 보드게임을 하는 사람을 위한 설명서에 말과 카드의 이름, 차례 순서는 적혀 있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 게임이 끝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구조 보기

대상 · 기준 · 근거 · 판단을 한 문장으로

대상
처음 보드게임을 하는
사람을 위한 설명서

기준
처음 하는 사람이
게임을 끝까지 할 수 있는가?

근거
이름과 차례 순서는 있음
게임이 끝나는 조건은 없음

판단
끝나는 조건을
보완해야 함

네 요소가 이어진 평가 문장

대상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한 설명서인데,

기준 게임을 끝까지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거 이름과 차례 순서는 있지만 끝나는 조건이 없으니,

판단 끝나는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

밑줄 색과 왼쪽 이름표 = 위 네 요소의 대응

오해 바로잡기

✗ 끝나는 조건이 없으니 설명서의 모든 정보가 틀렸다고 평가한다.

○ **'이름'과 '차례 순서'는 제시되어 있다. 처음 게임을 마칠 수 있도록 빠진 '끝나는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범위를 정한다.**

확인과 적용

문항 32 독자의 목적

> 전통 등 사진집에는 완성된 등의 모양과 색을 보여 주는 사진이 있지만 제작 순서는 없다. 혜원은 모양을 감상하려 하고, 시온은 처음으로 등을 만들려고 한다.

효용성을 평가한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제작 순서가 없으므로 감상하려는 혜원에게도 아무 쓸모가 없다.
② 감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첫 제작에는 순서 설명이 부족하다.
③ 사진이 있으므로 누구나 추가 정보 없이 처음부터 제작할 수 있다.
④ 두 독자가 읽으므로 두 사람의 목적도 반드시 같다.

문항 33 도움과 오류

> 자전거 여행 안내 글은 길의 경사를 알려 주어 코스 선택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쉼터의 위치 한 곳을 잘못 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경사 정보의 도움은 인정하되 잘못 표시한 쉼터 위치는 바로잡아야 한다.
② 코스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쉼터 위치가 틀린 것은 문제가 아니다.
③ 쉼터 한 곳이 틀렸으므로 모든 경사 정보도 거짓이다.
④ 틀린 위치가 있으므로 아무 독자도 경사 정보를 참고할 수 없다.

문항 34 목적에 맞는 보완

> 처음 종이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을 위한 글이다. 재료 목록과 완성 사진은 있지만 접는 순서는 없다.

이 글의 효용성을 높이는 보완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고를 말 ㉠ 접는 단계와 순서를 제시함 / ㉡ 제목의 글자 수만 늘림 / ㉢ 재료 목록을 모두 지움

답: (　　)

문항 35 평가의 범위

> 처음 연주하는 사람을 위한 악기 안내 글에 손가락을 놓는 위치는 있지만 소리를 내기 위한 호흡 방법은 없다.

주어진 근거에 맞게 범위를 정한 평가는 무엇인가요?

① 호흡 방법이 없으므로 손가락 위치도 반드시 잘못되었다.

② 전문 연주자는 알 수 있으니 초보자에게 필요한 설명도 이미 충분하다.

③ 글쓴이를 좋아하므로 어떤 보완도 필요하지 않다.

④ 손가락 위치 안내는 인정하면서 처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호흡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문항 36 평가 문장 완성

> 안내 글은 자전거를 처음 빌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빌리는 곳의 위치와 이용 요금은 있지만 반납 마감 시각은 없다.

대상·기준·근거·판단이 연결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처음 빌리는 사람이 제때 반납해야 하는데 마감 시각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해야 한다.

② 처음 빌리는 사람을 위한 글이지만 내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글 전체를 지워야 한다.

③ 처음 빌리는 사람을 위한 글에 반납 시각이 없으므로 빌리는 곳의 위치도 나와 있지 않다.

④ 처음 빌리는 사람에게 이용 요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반납 시각도 이미 안다.

통합 적용

지문 A 축제의 다회용 컵 반납대



[가] 축제 준비팀은 두 차례의 시범 운영에서 다회용 컵 반납 대기 시간을 기록했다. 첫째 날은 반납자 50명의 평균이 6분, 둘째 날은 반납자 50명의 평균이 4분이었다. 둘째 날에는 바닥에 이동 방향 표시를 새로 붙이고 안내자를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렸다.

초안의 문장: ⓐ “방향 표시만의 효과로 평균 대기 시간이 줄었다.”

[나] 둘째 날의 반납자 50명 모두에게 편리했는지 물었다. 40명이 편리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10명은 불편했다고 답했다. 다른 학생의 의견은 조사하지 않았다.

초안의 문장: ⓑ “전교생의 80%가 반납대를 편리하게 이용한다.”

[다] 수연은 “안내자가 없는 시간에도 반납이 원활한지 더 살펴본 뒤, 일부 시간대부터 운영을 늘리자”라고 제안했다.

초안의 소개: ⓒ “반납대가 불편하므로 모든 반납대를 없애자는 의견”

문항 37 조사 비율의 범위

지문 A [나]의 ⓑ에 쓰인 자료 사용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계산이 맞으므로 전교생의 실제 비율도 80%라고 확정된다.

② 불편하다고 한 사람이 있으므로 80% 계산도 반드시 틀렸다.

③ 40÷50=80%는 맞지만 그 비율을 전교생에게 넓힐 근거는 없다.

④ 전교생의 의견을 모두 묻지 않았으므로 40명의 응답도 거짓이다.

문항 38 단독 원인 평가

지문 A [가]의 ⓐ를 점검할 때 적절한 판단은 무엇인가요?

① 안내자가 늘었으므로 방향 표시는 효과가 전혀 없다.

② 안내자 증가의 영향도 있어 표시만의 효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③ 평균 대기 시간이 줄었으므로 안내자는 계속 두 명이었다.

④ 반납자가 두 날 모두 50명이므로 다른 모든 조건도 같다.

문항 39 원래 의견의 조건

지문 A [다]에서 수연의 제안을 그대로 정리하도록 고를 말을 빈칸에 기호로 쓰세요.

고를 말 ㉠ 안내자가 없는 시간 / ㉡ 모든 반납대 / ㉢ 일부 시간대

먼저 (　　)에도 반납이 원활한지 살펴보고, (　　)부터 운영을 늘리자.

문항 40 공정한 소개

지문 A [다]의 ⓒ를 공정하게 고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수연의 의견을 한 문장 더 길게 쓰되 전면 폐지라는 소개는 유지한다.

② 추가 확인 후 일부 시간대부터 늘리자는 조건과 제안 내용을 살려 수연의 의견을 소개한다.

③ 반대처럼 보이는 의견은 모두 삭제하고 초안의 장점만 남긴다.

④ 수연이 말했으므로 다른 근거와 관계없이 그 제안이 반드시 최선이라고 쓴다.

지문 B 별빛 전시관 관람 안내



자료 1 안내문 — 평가 대상

별빛 전시관 특별전 안내

이번 특별전에 처음 방문하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전시실별 주제와 관람에 필요한 시간을 살펴보고 보고 싶은 전시실을 골라 보세요. **특별전은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전시실	층	관람 시간
달 전시실	2층	약 20분
별자리 전시실	3층	약 30분

시간표

행사	시작 시각
특별전	오전 11시

※ 이 안내문에는 입구에서 각 전시실로 가는 길이 나와 있지 않다.

자료 2 별도 확인 자료

운영팀이 확정하여 공개한 현행 시간표이다. **자료 1과 같은 특별전·같은 운영 기간**을 가리킨다.

행사	시작 시각
특별전	오전 10시 30분

자료 3 독자 상황

처음 방문한 하람과 보호자는 보고 싶은 전시실을 고른 뒤 입구에서 그 전시실로 찾아가려고 한다.

문항 41 내부 일치와 외부 확인

지문 B의 시작 시각을 점검한 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본문과 표가 일치하므로 별도 자료를 대조할 필요는 없다.

② 두 자료가 다르므로 특별전은 반드시 취소되었다.

③ 안내문 안에서는 일치하지만 현행 시간표와 다른 시각은 고쳐야 한다.

④ 안내문 안의 본문과 표를 대조하는 활동은 외적 준거이다.

문항 42 독자 상황에 따른 효용성

지문 B 안내문의 효용성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전시실 선택에는 도움이 되지만 처음 방문한 사람의 이동에는 경로 정보가 부족하다.

② 경로가 없으므로 전시실 주제도 누구에게나 전혀 쓸모없다.

③ 층수가 있으므로 처음 방문한 사람도 모두 경로를 바로 안다고 확인된다.

④ 하람이 처음 방문하므로 이미 안내문에 있는 소요 시간도 틀리다.

문항 43 두 기준으로 보완

지문 B에서 고쳐야 할 정보와 더해야 할 정보를 고를 말에서 골라 기호로 쓰세요.

고를 말 ㉠ 시작 시각 / ㉡ 전시실 주제 / ㉢ 입구에서 각 전시실로 가는 경로

평가 기준	보완할 정보
정확성: 현행 시간표에 맞게 고침	( )
효용성: 처음 찾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더함	( )

문항 44 **독자와 목적을 바꾸면**

> 운영팀은 지문 B의 안내문을 “이미 길을 아는 재방문객이 전시실을 고르는 데 쓰는 글”로 바꾸어 소개했다. 안내문의 나머지 내용과 별도 확인 자료는 지문 B와 같다.

바뀐 독자와 목적을 고려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길을 아는 독자가 읽으므로 오전 11시라는 시작 시각도 정확해진다.

② 독자와 목적이 달라져도 경로 누락에 대한 효용성 평가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③ 대상 독자를 바꾸었으므로 기존의 전시실 주제와 소요 시간도 모두 쓸모없어진다.

④ 이동 경로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잘못된 시작 시각은 여전히 고쳐야 한다.

정답 한눈에 보기

문항	정답	문항	정답
01	③	23	㉠
02	㉠ 내용 파악 / ㉡ 근거 있는 평가	24	①
03	①	25	③
04	④	26	㉠, ㉡
05	근거: ㉡ / 판단: ㉢	27	②
06	②	28	④
07	②	29	③
08	㉢	30	비가 많이 오는 날
09	④	31	④
10	①	32	②
11	③	33	①
12	㉠ 내적 준거 / ㉡ 외적 준거	34	㉠
13	④	35	④
14	②	36	①
15	①	37	③
16	③	38	②
17	위에서부터 B / A	39	첫 칸 ㉠ / 둘째 칸 ㉢
18	②	40	②
19	①	41	③
20	위에서부터 ◯ / ? / ×	42	①
21	④	43	위에서부터 ㉠ / ㉢
22	③	44	④

정답과 해설

오답 태그 읽기

태그	뜻
[지문에 없음]	주어진 정보에 없는 사실이나 관계를 보태어 판단함.
[뜻을 바꿈]	글의 대상·조건·방향·정도 또는 평가 기준을 바꾸어 읽음.
[일부만]	판단에 필요한 내용 중 일부만 읽고 나머지를 빠뜨림.

오답 태그는 잘못 읽은 방식을 나타냅니다. 내용에 대한 ○·×·? 판정과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거 부족을 곧바로 거짓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해설 01

정답 ③

비판적 읽기는 기준과 근거에 따른 평가입니다. 동의와 반대 중 어느 쪽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평가의 정확성을 단점의 개수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② **[일부만]** 장단점을 제시했다는 형식만 보고 실제 근거와 비교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선호가 수치의 정확성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1

해설 02

정답 ㉠ **내용 파악** / ㉡ **근거 있는 평가**

㉠은 누가 어떤 근거를 들었는지 정리하고, ㉡은 사용 기간이라는 기준으로 근거 제시 방식을 판단합니다.

채점 첫 칸에 '내용 파악', 둘째 칸에 '근거 있는 평가'를 씁니다.

돌아갈 곳 질문 01, 질문 02

해설 03

정답 ①

만들기를 준비하려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인 수량이 빠져 있다는 구체적 근거로 평가했습니다.

> 오답 ② **[지문에 없음]** 글자 모양에 대한 취향으로 준비물 내용의 오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초보자가 필요한 수량을 이미 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 오답 ④ **[뜻을 바꿈]** 수량 누락을 준비물 이름의 오류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3

해설 04

정답 ④

반론이 제기한 통로 조건과 원래 주장의 대기 줄 감소를 연결해 실제 근거를 확인합니다.

> 오답 ① **[지문에 없음]** 색 선호는 통로 조건과 대기 줄 감소를 점검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반론의 존재를 방안의 실패 확정으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발언 순서가 효과를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2

해설 05

정답 **근거: ㉡ / 판단: ㉢**

㉡은 글에서 확인한 정보의 누락이고, ㉢은 그 근거에 따른 보완 판단입니다. ㉠은 평가 대상입니다.

채점 근거에 ㉡, 판단에 ㉢을 씁니다.

돌아갈 곳 질문 03

해설 06

정답 ②

대상과 행사가 같고 예외나 변경 조건도 없으므로 두 안내가 충돌합니다. 실제로 어느 규칙이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오답 ① **[지문에 없음]** 내부의 충돌만으로 실제 규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변경 안내가 없으므로 위치만으로 규칙의 폐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참가 제한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4

해설 07

정답 ②

예약의 필요 여부가 적용되는 시간대를 각각 오전과 오후로 구별했습니다.

> 오답 ① **[일부만]** 오전과 오후라는 서로 다른 적용 조건을 빠뜨렸습니다.

> 오답 ③ **[뜻을 바꿈]** 오후에 적용되는 규칙을 오전까지 넓혔습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시스템 고장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4

해설 08

정답 ㉢

㉠은 준비, ㉡은 제작 순서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의 노래 가사는 받침 만들기와 어떤 관계인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채점 ㉢ 하나를 씁니다.

돌아갈 곳 질문 06

해설 09

정답 ④

좌석 배치를 설명하려면 객석과 출입구의 위치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배치도와 설명으로 제시하면 공간 관계를 전하는 데 알맞습니다.

> 오답 ① **[일부만]** 이미 있는 연도 정보의 반복으로는 빠진 공간 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 오답 ② **[지문에 없음]** 날씨 속담이 좌석 배치 설명을 돕는다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 오답 ③ **[뜻을 바꿈]** 설명의 적절성을 분량만 늘리는 일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5

해설 10

정답 ①

요약 문단이 앞선 설명을 제대로 묶는지 살피는 것은 부분들이 중심 내용에 맞게 연결되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 오답 ② **[지문에 없음]** 문장 수가 같아야 유기적이라는 기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색 선호로 문단의 연결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오답 ④ **[일부만]** 낱말의 반복만 보고 내용과 역할의 실제 연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6

해설 11

정답 ③

소식지와 별도로 제공된 공식 진행 기록, 곧 처음 기록한 자료를 소식지의 정보와 대조하는 활동입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글 자체의 제목과 본문 관계를 살피는 내적 점검입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글 내부의 수치와 설명을 대조하는 활동입니다.

> 오답 ④ **[뜻을 바꿈]** 글 자체의 짜임을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돌아갈 곳 질문 07, 질문 08

해설 12

정답 ㉠ **내적 준거** / ㉡ **외적 준거**

㉠은 소개 글 내부의 문장끼리, ㉡은 소개 글과 별도 시설 기록을 대조합니다. 두 활동 모두 수치의 정확성을 살피지만 대조 대상이 다릅니다.

채점 ㉠에 '내적 준거', ㉡에 '외적 준거'를 씁니다.

돌아갈 곳 질문 08

해설 13

정답 ④

출처를 실제로 찾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이 해당 가방의 튼튼함을 뒷받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오답 ① **[일부만]** 출처 표시의 유무만 보고 실제 내용과 방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근거 부족을 반대 결론의 입증으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광고 글자 크기로 보고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9

해설 14

정답 ②

이해관계는 점검할 요소입니다. 판매자라는 이유로 참이나 거짓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자료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결과가 거짓이라는 판정으로 넓혔습니다.

> 오답 ③ **[일부만]** 작성자의 지식 가능성만 보고 자료와 방법 검증을 생략했습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색의 선호와 시험의 정확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돌아갈 곳 질문 09

해설 15

정답 ①

오늘의 운영을 알려면 현재 적용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거 기록이 당시에도 거짓이었다고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현재와 다르다는 사실을 과거 정보 전체의 오류로 넓혔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글자 수로 정보의 시점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시각의 불일치가 휴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7, 질문 09

해설 16

정답 ③

21÷30=70%라는 계산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모는 조사한 참가자 30명이며 마을 주민 전체가 아닙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21÷30=0.7이므로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 오답 ② **[일부만]** 계산만 확인하고 조사 집단의 범위 차이를 무시했습니다.

> 오답 ④ **[뜻을 바꿈]** 전체 비율을 모른다는 사실을 70%가 아님이 입증된 것으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0

해설 17

정답 **위에서부터 B / A**

찬성한 수는 B의 12명이 A의 9명보다 많습니다. 비율은 A가 9÷12=75%, B가 12÷20=60%이므로 A가 높습니다.

채점 첫 칸에 B, 둘째 칸에 A를 씁니다. 사람 수와 비율을 구별합니다.

돌아갈 곳 질문 11

해설 18

정답 ②

총횟수는 240회가 더 많습니다. 하루 평균은 첫 기간 50회, 둘째 기간 40회로 첫 기간이 더 많습니다.

> 오답 ① **[일부만]** 기록 기간이 다르다는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오답 ③ **[뜻을 바꿈]** 둘째 기간의 하루 평균은 240÷6=40회입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방문 횟수를 중복이 제거된 사람 수로 바꿀 근거가 없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1

해설 19

정답 ①

자료의 단위는 입장 횟수입니다. 같은 사람의 여러 번 입장이 포함되므로 중복을 제거한 인원과 구별해야 합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중복 입장을 포함한 횟수를 서로 다른 사람의 수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개인별 입장 횟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오답 ④ **[뜻을 바꿈]** 횟수 집계 방식에 맞는 기록을 오류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1

해설 20

정답 위에서부터 ○ / ? / ×

15÷25=60%입니다. 무응답자의 의견은 알 수 없고, 25명만 답했으므로 40명 전원이 답했다는 말은 충돌합니다.

채점 위에서부터 ○, ?, ×를 씁니다. 둘째 칸을 ×로 쓰면 무응답자의 실제 의견까지 부정한 것이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0, 질문 12

해설 21

정답 ④

장점과 찬성을 미리 단정하는 표현을 빼고 서로 다른 입장을 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긍정 평가를 더 강하게 하므로 유도 가능성을 줄이지 못합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특정 의견만 답하도록 만들어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 오답 ③ **[일부만]** 질문 문구의 유도 표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2

해설 22

정답 ③

그려진 막대는 60회를 뺀 부분의 길이입니다. 실제 값 70회와 80회를 보아야 하므로 이용 횟수가 두 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제시된 이후 값은 80회이며 막대 길이를 실제 값의 배수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그래프 표현상의 주의점을 기록된 수치의 거짓으로 확대했습니다.

> 오답 ④ **[뜻을 바꿈]** 실제 차이는 80−70=10회입니다.

돌아갈 곳 질문 13

해설 23

정답 ㉠

판단하려는 시점은 이번 여름입니다. 작년 겨울의 시간표가 지금도 적용되는지 현행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점 ㉠ 하나를 씁니다.

돌아갈 곳 질문 07

해설 24

정답 ①

사용의 확산이 특정 집단에서 특정 크기의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절반 감소라는 결론에 맞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 오답 ② **[일부만]** 사용 빈도만으로 특정 효과의 크기까지 입증하지 못합니다.

> 오답 ③ **[뜻을 바꿈]** 자료 부족을 장점 전체의 부정으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사람에 대한 호감과 앱의 효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돌아갈 곳 질문 14

해설 25

정답 ③

정리 방법과 담당 인원이 함께 변했습니다. 결과의 감소는 확인되지만 한 요인만의 효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단독 효과를 모르는 것과 효과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담당자 한 명을 더 배치했다는 정보를 부정했습니다.

> 오답 ④ **[일부만]** 같은 시기의 담당 인원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5

해설 26

정답 ㉠, ㉡

구매자 수와 판매 직원 수는 대기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조건입니다. 영화 제목은 이 결과와의 관련성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채점 ㉠과 ㉡을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씁니다. 이 두 항목은 확인할 후보이며 실제로 바뀌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돌아갈 곳 질문 15

해설 27

정답 ②

통로 폭 자료는 아무 불편도 없다는 결론과 직접 관련됩니다. 그 자료를 빼고 결론을 확정한 방식과 근거의 충분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오답 ① **[일부만]** 분량만으로 판단하고 빠진 관련 자료와 결론의 연결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 오답 ③ **[뜻을 바꿈]** 불리한 관련 자료의 배제를 공정한 정보 제시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선호하는 사람 수가 측정 자료의 거짓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6

해설 28

정답 ④

공정성은 관련 근거와 입장을 부당하게 누락하거나 바꾸었는지와 관련됩니다. 문장 수를 반드시 같게 맞추는 기준은 아닙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공정성을 동일한 문장 수로만 판단했습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근거의 강도를 평가하는 일 자체를 불공정으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③ **[뜻을 바꿈]** 반대 근거가 한 문장으로 소개되었다는 사실과 충돌합니다.

돌아갈 곳 질문 16

해설 29

정답 ③

원래 의견은 비어 있는 시간의 대여입니다. 이를 수업 전면 폐지와 시설 이전으로 바꿔 공격했습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비어 있는 시간만 빌려 주자는 조건과 다릅니다.

> 오답 ② **[지문에 없음]** 길이가 아니라 조건과 범위를 바꾼 내용이 문제입니다.

> 오답 ④ **[일부만]** 공통 낱말만 보고 사용 조건과 제안 내용을 바꾼 점을 놓쳤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7

해설 30

정답 **비가 많이 오는 날**

실내 모임 제안은 모든 날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한정됩니다.

채점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씁니다. ‘비가 오는 날’은 원문의 ‘많이’라는 정도 조건을 빠뜨려 완전한 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7

해설 31

정답 ④

평가 대상은 자료와 주장의 연결입니다. 인간관계가 측정 내용이나 결론의 타당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오답 ① **[지문에 없음]** 개인 관계로 자료의 참·거짓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오답 ② **[일부만]** 발표 태도만 보고 관련 자료의 검증을 생략했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관계 개선이 배치안의 타당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4

해설 32

정답 ②

같은 글도 감상과 제작이라는 독자의 목적에 따라 도움과 부족한 점이 달라집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제작 목적에서의 한계를 감상 목적에도 그대로 넓혔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사진만으로 초보자가 전체 제작 과정을 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오답 ④ **[뜻을 바꿈]** 감상과 제작으로 다른 목적이 직접 제시되었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8

해설 33

정답 ①

효용성과 정확성을 따로 점검하여 유용한 부분과 확인된 오류의 범위를 구별했습니다.

> 오답 ② **[일부만]** 도움이 된다는 점만으로 확인된 오류를 덮었습니다.

> 오답 ③ **[뜻을 바꿈]** 한 곳의 위치 오류를 다른 정보 전체의 거짓으로 넓혔습니다.

> 오답 ④ **[뜻을 바꿈]** 특정 오류를 모든 독자에게 모든 정보가 무용하다는 판단으로 확대했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9

해설 34

정답 ㉠

초보자의 제작 목적에 필요한 과정 정보가 빠져 있으므로 접는 단계와 순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채점 ㉠ 하나를 씁니다.

돌아갈 곳 질문 18, 질문 20

해설 35

정답 ④

이미 있는 정보와 빠진 정보를 구별하고 초보자의 연주 목적에 연결했습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설명의 누락을 다른 설명의 오류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대상 독자를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필자에 대한 호감이 빠진 정보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20

해설 36

정답 ①

처음 빌리는 사람을 위한 안내 글(대상)을 제때 반납할 수 있는지(기준) 살폈습니다. 마감 시각이 없음(근거)을 들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판단)고 연결했습니다.

> 오답 ② **[지문에 없음]**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글 전체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 오답 ③ **[뜻을 바꿈]** 위치는 제시되었다는 정보를 부정했습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요금 안내만으로 독자가 마감 시각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3, 질문 20

지문 A 평가 점검

지문 A · 숫자, 원인, 의견 소개를 따로 평가

[가] 대기 시간과 원인
평균: 6분 → 4분 / 반납자: 두 날 모두 50명
방향 표시를 붙이고 안내자도 2명 → 3명으로 늘림
감소는 기록됨 · 방향 표시만의 효과인지는 더 확인

[나] 응답 비율과 전체
둘째 날 반납자 50명 중 40명: 편리했다 = 80%
이 응답을 전교생의 비율로 확정할 근거는 없음

[다] 원래 의견의 범위
안내자가 없는 시간도 확인 → 일부 시간대부터 확대
모든 반납대를 없애자는 의견으로 바꾸면 안 됨

관찰·계산이 맞는 부분과, 넓혀 말한 결론을 구별
화살표 = 전후의 수치 변화 또는 제안의 순서 · 인과 확정이 아님

해설 37

정답 ③

둘째 날의 반납자 50명이 분모입니다. 계산과 조사 범위의 일반화를 나누어 평가해야 합니다.

> 오답 ① **[일부만]** 계산만 보고 반납자와 전교생의 범위 차이를 놓쳤습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40명이 편리했다고 답한 비율 80%는 정확하며 반대 응답의 존재와 함께 성립합니다.

> 오답 ④ **[뜻을 바꿈]** 조사 범위의 한계를 실제 응답의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0, 질문 12

해설 38

정답 ②

같은 시기에 두 조건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대기 시간 감소 자체는 기록되었지만 표시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영향의 크기를 모른다는 점을 효과가 없다는 결론으로 바꿨습니다.

> 오답 ③ **[뜻을 바꿈]** 둘째 날 세 명으로 늘었다는 명시된 정보와 충돌합니다.

> 오답 ④ **[뜻을 바꿈]** 인원 수 한 가지가 같다는 사실을 모든 조건이 같음으로 넓혔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5

해설 39

정답 **첫 칸 ㉠ / 둘째 칸 ㉣**

수연은 안내자가 없는 시간의 운영을 확인하고 일부 시간대부터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전면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채점 첫 칸에 ㉠, 둘째 칸에 ㉣을 씁니다.

돌아갈 곳 질문 17

해설 40

정답 ②

공정하게 소개하려면 원래 의견의 조건과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 극단적인 폐지 의견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 오답 ① **[일부만]** 분량만 늘리고 조건과 제안을 바꾼 핵심 문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 오답 ③ **[뜻을 바꿈]** 관련 의견을 부당하게 빼는 방식은 공정한 보완이 아닙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의견을 정확히 소개하는 것과 최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돌아갈 곳 질문 16, 질문 17

지문 B 평가 점검

지문 B · 정확성과 효용성을 함께 살피기

시작 시각 · 정확성
안내문 본문과 표: 오전 11시
별도 현행 표: 오전 10시 30분
같은 특별전·같은 기간

독자 상황 · 효용성
처음 방문한 독자
전시실을 고른 뒤 찾아가려 함
입구에서 이어지는 경로 없음

인정할 점
전시실 주제와 소요 시간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바로잡고 더할 점
시작 시각은 현행 자료와 맞추어 고침
처음 이동하는 독자를 위해 경로 정보를 더함

해설 41

정답 ③

내적 일치가 현실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특별전과 기간의 확정 시간표가 10시 30분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답 ① **[일부만]** 내부 일치만 보고 같은 대상의 현행 자료와 다른 점을 무시했습니다.

> 오답 ② **[지문에 없음]** 취소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 오답 ④ **[뜻을 바꿈]** 평가 대상 글 안의 문장끼리 대조하는 내적 점검입니다.

돌아갈 곳 질문 07, 질문 08

해설 42

정답 ①

독자는 전시실을 고른 뒤 찾아가려 합니다. 선택을 돕는 정보와 이동에 부족한 정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이동 목적에서의 한계를 모든 정보와 모든 독자에게 확대했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층수만으로 입구에서 이어지는 경로를 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오답 ④ **[지문에 없음]** 처음 방문했다는 독자 상황이 소요 시간의 오류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8, 질문 19

해설 43

정답 **위에서부터 ㉠ / ㉢**

확인 자료와 다른 시작 시각은 수정하고, 처음 이동하는 독자를 위해 빠진 경로는 보충해야 합니다. 주제는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채점 첫 칸에 ㉠, 둘째 칸에 ㉢을 씁니다.

돌아갈 곳 질문 19, 질문 20

해설 44

정답 ④

재방문객이 이미 길을 알고 전시실을 고르는 데 목적을 두면 경로 누락의 효용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가 바뀌어도 현행 시간표와 다른 시작 시각이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오답 ① **[뜻을 바꿈]** 독자의 배경지식 변화가 시간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 오답 ② **[뜻을 바꿈]** 효용성은 독자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답 ③ **[지문에 없음]** 전시실을 고르려는 재방문객에게도 주제와 소요 시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8, 질문 19, 질문 20